

# '승리호' 송중기 "국내 첫 우주 SF영화...기대되고 설레"

위험한 우주쓰레기 청소하는 노동자 소재

'늑대소년' 조성희 연출...5일 넷플릭스 공개

배우 송중기와 김태리가 주연을 맡은 국내 최초 우주 SF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만난다.

2일 영화 '승리호' 프레스 콘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영화를 연출한 조성희 감독과 송중기, 김태리, 진선규, 유혜진이 참석했다.

'승리호'는 2002년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초 우주 SF영화다.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장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을 발견한 후 위험한 거리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시작은 조성희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 '늑대소년'보다 더 이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가 들려준,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우주폐기물의 존재에서 조 감독은 만약 이 위험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승리호'에는 우주 히어로가 아닌 하루하루 밥벌이를 걱정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이 등장한다. 우주개발기업 UTS가 오염된 지구를 떠나 우주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었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비시민이자 우주쓰레기를 모으며 사는 노동 계급인 '승리호'의 선원들이 주인공이다.

조 감독은 "승리호는 고종보다 상상력에 기반한 영화이지만 우주선 안 인물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우주 SF에 한국의 시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다른 작품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위치이자 이 영화의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적인 SF 영화의 위화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배우진은 국내 첫 우주 SF영화인 것에 더해 우주 쓰레기라는 소재가 신선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했다.

영화 '늑대소년'에 이어 8년 만에 조 감독과 재회한 송중기는 "늑대소년 촬영할 때 우주 SF 영화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격적이고 신선했다"고 떠올렸다.

한국 최초 우주 SF영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된다며 "부담감은 아마 조성희 감독님께서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최초의 우주 영화, 국가대표 같은 느낌의 부담을 갖고 싶지 않았겠지만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반대로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는 점이 많았다. 어린이가 된 것 같다. 시나리오를 보고 '구니스'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 신나게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신에 '승리호'의 배경이 우주인 것뿐이다"고 했다.

히슬레 보이지 않지만 전제적인 실력을 가진 조중사 태호 역을 맡은 그는 "감독님과 두 번째 작업인데 한 번도 멋있는 역할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태호는 내면적으로는 순수하고 말끔한 캐릭터다. 조성희 감독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특기했다.

'승리호'는 송중기가 이혼 후 출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영화 속 태호를 접하고 자포자기가 떠올랐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정체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다. 실제 송중기의 마음 상태와 태호가 비슷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태호가 여러 가지 어우러짐을 겪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지금의 (승리호) 크루들을 만났다. 삶의 끈을 부여잡을 것 같은 용기를 조금씩 얻는 의지를 갖게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크루들이 태호를 많이 도와준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태호 캐릭터와 대비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김태리는 나이는 가장 젊지만 승리호의 브레인이자 전라가인 '장선장'으로 분했다. 자기 몸집만한 레이저 건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위풍당당한 카리스마를 선보인다.

그는 "시나리오 읽을 때 장선장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여성 선장이라는 점이 특히 좋았다"며 "SF 영화는 할리우드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데 우리 영화는 한국적이다. 시작점에서 다같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만족해했다.

진선규는 '승리호'의 심장인 엔진실을 책임지는 기관사 '타이거 박'을 연기했다. 드레드



헤어와 문신, 그리고 용맹하게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까지 거친 외모이지만 따뜻한 반전을 지닌 인물로 극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유혜진은 로봇 모션 캡처 연기에 도전했다. 선장이 업어와서 이름도 '업둥이'인 작살잡이 로봇 역이다. 한국영화 최초로 로봇 모션 캡처 연기에 도전한 유혜진은 모션 캡처 장비를 몸에 달고 움직일뿐만 아니라 목소리 연기까지 직접 소화했다.

유혜진은 "시나리오는 재밌는데 어떻게 영상화가 될지 걱정도 됐지만 감독님이 화이트보드에 업둥이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다. 많이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들었다"며 "참고한 역할은 없다. 그냥 부딪혀봤다. 로봇이지만 심장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연

기했다"고 전했다. '승리호'는 지난해 여름 시장과 추석 대목을 차례로 노렸다가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로 방향을 틀었다.

송중기는 "상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태리는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집에서 볼 때 사운드를 키워서 보면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뉴스

## '마우스' 이승기x이희준x박주현x경수진, 인간사냥 추적극

다음달 3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

이승기, 이희준, 박주현, 경수진이 출연하는 '마우스'가 인간사냥 추적극의 강렬한 서막을 열었다.

tvN 새 수목극 '마우스'는 자타 공인 바른 청년이자 동네 순경인 정바름(이승기)과 어린 시절 살인마에게 부모를 잃고 복수를 향해 달려온 무법 형사 고무치(이희준)가 사이코패스 중상위 1퍼센트로 불리는 가장 악랄한 프레데터와 대치 끝,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모습을 그려낸 본격 '인간헌터 추적극'이다.

우뚜키니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방에 불이 타치며 시작되는 3차 티저 영상은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정바름과 고무치, 최홍주(경수진)의 표정이 차례로 펼쳐진다.

남자한 피와 어둠 속에 벌어진 습격, 빡속 추적전, 비를 맞으며 오열하는 오봉이(박주현)의 절규 등 의문의 사건들이 연달아 맞물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긴다.

"그는, 사냥한다. 인간을"이라는 범상치 않은 문구의 등장 후 갈대밭에 홀로 선 채 허망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고무치의 모습과 절망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마는 정바름의 얼굴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언제쯤 이 사냥을 멈출까요"라는 정바름의 체념이 묻어나는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이 울려



퍼지면서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한편 '마우스'는 다음달 3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된다. 뉴스

## 여자친구 측 '나치 마네킹' 논란 사과

"문제 인지 못해 죄송...소원 본인도 깊은 책임 느껴"



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인지하지 못한 채 업로드를 했다"고 보충했다.

쏘스뮤직 측은 "촬영 현장에 부적절한 소품이 있는 것을 사전 확인하지 못하였고 콘텐츠를 촬영,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수하지 못했으며, 역사적 사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를 여자친구 소원이 독일 나치를 연상시키는 군복을 착용한 마네킹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소속사 쏘스뮤직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여자친구의 컴백쇼 VCR 비하인드 영상 및 멤버 소원이 업로드한 사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새 앨범 컴백쇼 VCR 촬영을 위해 방송국 외주 제작사에서 파주에 있는 한 카페를 대어했고, 당사 스태프들은 촬영 현장에서 비하인드 영상 촬영은 물론 아티스트 SNS에 쓰일 여러 장의 사진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당일 현장 체크 과정에서 해당 마네킹의 복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해당 비하인드 영상(12월12일) 및 사진(1월31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 검수 및 논의 과정을 거쳤

해당 영상과 사진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재차 사과했다. 멤버 소원과 관련해서는 "아티스트 본인도 사진 내용의 의미를 인지하고 매우 놀라 즉시 사진을 삭제했으며, 이러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소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독일 군복을 입은 마네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사진 속 마네킹이 착용한 군복이 독일 나치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여자친구의 컴백쇼 비하인드 영상 촬영지이며, 논란이 된 마네킹이 등장하는 영상이 여자친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관련 영상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소원도 즉각 게시물을 삭제했다.

## 송은이·악뮤·재재 '독립만세', 김희철·봄 MC 합류

오는 22일 오후 10시30분에 첫방송

독립 왕초보의 좌충우돌 독립 도전기인 JTBC 새 예능프로그램 '독립만세'가 오는 22일 오후 10시30분에 첫 선을 보인다.

2일 JTBC에 따르면 '독립만세'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보지 않았던 연예인이 생애 최초로 독립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찰 예능이다.

'독립만세'는 독립생활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일종의 '독립실험'이다. 직접 집을 구하는 것부터 스스로 생활해나가는 것까지 독립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존의 일상을 과감히 버리고 독립의 세계로 뛰어든 출연진들의 리얼 일상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첫 주자로 송은이와 악뮤(AKMU), 연반인(연예인+일반인) 재재가 출연해 독립생활에



돌입한다. 연예계 대표 쟁쟁무족인 송은이는 반백 살 만에 생애 첫 독립을 결심해 허당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음악천재 남매 듀오 악뮤는 부모님 품을 벗어나 인생 첫 홀로서기에 도전, 열정 넘치는 20대 독립 새내기 모습을 보여준다. 웹예능 '문명특급' MC로 활약하고 있는 재재도 합류

해 사회초년생의 썬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또 지난해 '가요대전'에서 찰떡 호흡을 보여준 남다른 예능감의 소유자 봄과 김희철이 MC로 출연한다. 이들은 초보 독립러들의 리얼한 일상을 보고 조언을 하며 역대급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 유혜진, 12년 전속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떠난다

배우 유혜진이 12년간 함께한 현 소속사를 떠난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2일 "유혜진 배우와 오랜 논의 끝에 매니저먼트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년간 긴 시간 동안 당사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유혜진 배우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앞으로 유혜진 배우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혜진은 심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사

명이 바뀐 하이브라더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12년간 현 소속사와 인연을 이어왔다.

그는 1997년 영화 '블랙잭'으로 데뷔해 이후 '왕의 남자', '타짜', '이장과 군수', '전우치', '이끼', '부당거래',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베터랑', '럭키', '공조', '택시운전사', '1987', '완벽한 타인', '말모이', '봉오동 전투'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또 오는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 '승리호'에도 출연했다.